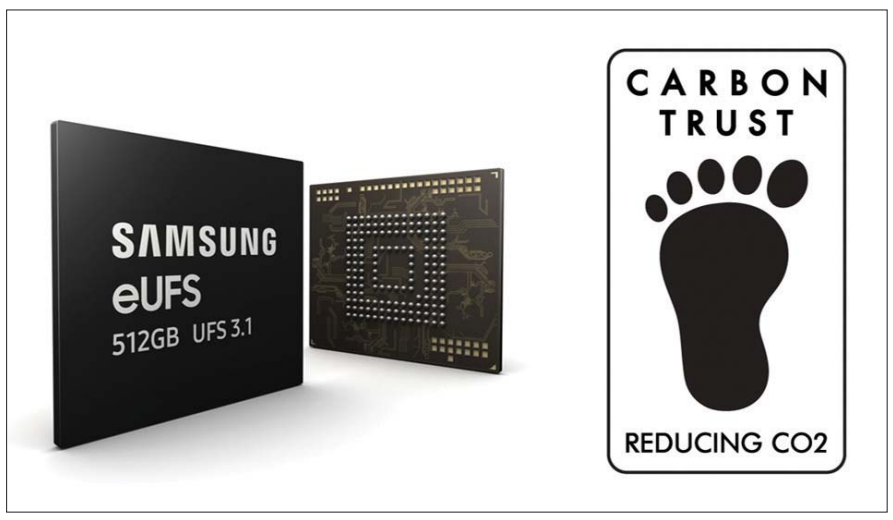
CO_2 배출권 팔아 1兆 번 테슬라… ESG, 규제 아닌 성장동력

〈환경·사회·지배구조〉

ESG경영, 미래 수익·사업 지속성 ↑
탄소배출권 시행 국가 꾸준히 증가
막대한 초기비용… 中企 적용 난항

재계가 ESG 경영을 중요시하는 데에는 비단 사회적 기여에만 목적을 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친환경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자금이 몰려드는 곳이라는 이유도 크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경영 여건상 ESG가 쉽지 않은 상황, 대기업이 직접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 쉽지는 않은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9종에 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인근 가락바위 저수지. /삼성디스플레이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판매만으로도 10억 달러(한화 약 1조원)를 넘게 벌어들였다.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12억달러) 중 대부분을 탄소 배출권으로 채웠다는 얘기다. 테슬라는 여전히 차량을 판매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막대한 투자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로, 생산이나 제품 친환경성을 통해 목표치를 넘어선 기업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해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탄소 배출권을 대량 확보할 수 있었다.

탄소 배출권을 시행 중인 국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만 이행됐지만, 중국도 올해부터 2225개 주요 전력 사용 기업에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을 이행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1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된 세계 2위 탄소 시장으로,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 배출이 곧 지출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ESG 경영은 기업 생존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재계가 친환경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투자 금액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미래에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데다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판단이다.

당장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비환경적인 사업은 손을 떼고 있다. 삼성물산은 석탄 관련 투자나 시공, 무역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현대차그룹도 전기차와 수소차에 비중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 의존도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두산그룹도 화력과 원전 등 지난 사업들을 정리하고 풍력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났다.

거대 자본들도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정부의 '그린 뉴딜' 등 글로벌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앞세우면서 전기차와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이 각광받게 됐고, 특히 코로나19로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글로벌 은행들은 최근 기업 자금 조달에 ESG를 반영해 우대해주는 대출을 늘려가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 연계 대출'로, ING가 2017년 15개 은행들과 필립스에 10억유로를 대출한 게 최초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현대커머셜과 크레비스가 기업 대출 심사 및 투자에 ESG 등급을 반영하기로 발표하는 등 관련 행보가 이어지는 추세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최근까지도 생산 시설이 지역의 혐오 시설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환경 경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적인 노력이 수질 개선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업체들은 제조 과정에서 쓴 물을 정화 배출해, 오히려 지역 하천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덕분에 과거에는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공업 용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놓였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구축하면서 지역민들을 쉽게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유동 자금이 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전자가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제조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환경과 안전 등 부문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대기업도 상생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세계로 뻗어가는 K웹툰… 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 제작 활발

포털은 올해도 청신호

❹ 웹툰서비스

네이버 美 등 글로벌 시장서 인기
카카오 픽코마앱 日서 매출 1위 달성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웹툰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K웹툰을 전 세계 시장에 서비스하는 한편 웹툰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 제작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영상화했거나 영상화 예정인 웹툰 작품 이미지. /네이버

카카오페이지가 선보인 웹툰 작품들. /카카오페이지

◆글로벌 시장서 빛나는 K웹툰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8월 글로벌 MAU(월간 순 사용자) 6700만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6200만에서 매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의미가 있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유료 거래액도 급등했다. 지난해 8월 네이버웹툰의 한 달 거래액 800억원을 돌파하면서 네이버는 연간 거래액 목표인 1조원을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을 보이기도 했다.

네이버웹툰은 2014년 영어와 대만어로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출시했고, 2013년부터 라인망가를 통해 일본시장에서 웹툰을 알리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웹툰의 영역을 넓혀왔다.

실제로 한국 작품 '여신강림'은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글로벌 각국에서 인기 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각종 K웹툰이 인기를 모으며 거래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영어 작품 '로어 올림푸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 순위 상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한국에서도 연재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미국을 네이버웹툰의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웹툰 IP의 사업 전용 플랫폼인 '웹툰 스튜디오'도 출시했다.

네이버웹툰은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를 유럽과 남미에서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캔버스를 통해 현지 작품을 발굴하고 작가를 양성하여 정식 데뷔시키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에서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을 통해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웹소설, 영화, 방송, 책 분야에서 7만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00개는 카카오의 독점 IP에 해당한다. 카카오페이지는 2022년까지 카카오페이지의 플랫폼 네트워크를 한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 중국, 동남아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수 투자 및 직접 진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에서 지난 2016년 4월 출시한 만화앱 픽코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다지는 발판이 되고 있다. 픽코마의 지난해 3분기 거래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한 약 1300억원이며, 연간 누적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2700여 억원에 달한다. 픽코마는 지난 7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비게임 앱 매출 1위에 오른 후 9월까지 1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픽코마의 대부분 작품은 일본의 기존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코믹으로 일본 독자들이 웹툰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더욱 기대된다.

◆웹툰 IP활용 활발…영화, 드라마로 제작돼 인기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웹툰의 IP를 활용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2차 콘텐츠로의 제작도 활발하다. 올해도 다양한 웹툰의 영상화가 예정돼있다.

최근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과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스위트홈은 공개 이후 넷플릭스 글로벌 인기 랭킹 3위를 기록했다. 학원 좀비물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과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최규석 작가와 함께 선보인 웹툰 '지옥'도 영상 시리즈물로 제작 예정이다.

이달 방송 예정인 JTBC 새 월화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는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방영 예정인 tvN 새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도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네이버웹툰과 웹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지난해 9월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와 극장용 장편 영화 5편 제작에 대한 판권 계약을 맺었다. 또한 네이버웹툰 자회사 스튜디오N을 통해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 '연의 편지', '나노리스트'가 애니메이션으로, '용감한 시민'이 영화로 제작된다.

카카오페이지 작품 중에서는 영화 시나리오에서 출발해 연재된 웹툰 '승리호'가 동명의 영화로 올해 초 넷플리스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지에서 2014년 첫 연재 후 누적 조회수 4.3억 뷰 및 누적 댓글 60만개 등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의 이야기를 그린 웹툰 '이미테이션'도 내년 상반기 KBS드라마로 방영을 앞두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